# 경허 선사 일대기, 스크린으로 만난다

**3월 19일 전국 극장 개봉**
**나병 여인과 일화 등 소개**
**경허 선사 면면들 담아내**
**"파격적 무애행으로 가려진 선사 사상, 바로 조명되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영화 '그 사람 경허 선사' 스틸컷.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 선사의 면면을 전국 극장 스크린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윤용진 감독이 연출한 영화 '그 사람 경허 선사(2025)'가 3월 19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독보적인 영상미로 화제가 된 '할(2012)'과 '선종무문관(2017)' 이후 윤 감독이 8년 만에 선보이는 불교영화다.

'그 사람 경허 선사'는 지난해 미국 '제27회 아르파 국제영화제', 이탈리아 '제78회 살레르노 국제영화제' 경쟁작으로 선정됐으며 미국 '제58회 휴스턴 국제영화제' 역사 시대극 은상을 수상해 작품의 우수성은 이미 해외에서 검증됐다.

영화는 경허 선사가 내보였던 파격적 무애행의 일화가 중심이 돼 전개된다. 엄동설한의 겨울날, 사찰에 찾아온 나병 여인을 내치지 않고 방 안에 들인 경허 선사(이정훈 분)는 그녀(박정언 분)를 정성껏 보살피며 머물 수 있도록 한다. 이내 사찰에서는 경허 선사에 대한 구설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오해를 풀기보다는 묵빈대처를 선택한 경허 선사는 이내 사찰을 나서고 이후 증명법사로 참석한 부처님 점안식에서 소란이 일어나게 된다.

여기에 제자 만공 스님(조영민 분)의 일화까지 더해지며 경허 선사의 수행자로서의 면모와 인간적인 모습이 함께 만날 수 있다.

또한 서울 북한산 심곡암과 영불사에서 촬영된 부처님 점안식은 조계종 어산어장 동희 스님이 직접 참여해 극의 생동감을 더했다.

독립예술영화인 '그 사람 경허 선사'는 오로지 윤 감독의 원력으로 제작이 이뤄졌다. 윤 감독은 '선종무문관' 제작 이후 경허 선사의 가르침들을 전하고자 마음을 먹고 2018년부터 기획 및 제작 준비에 들어갔다. 본격적인 제작은 2024년에 이뤄졌으며, 그해 심의를 확정하고 이번에 개봉하게 됐다.

윤 감독은 "20여 년 전 마흔의 나이에 극심한 공황장애를 겪으며 불교를 공부하게 됐고, 그 중에서 선불교의 세계가 저를 사로잡았다"며 "경허 선사는 우연히 접한 선시 한 수에서 비롯됐다"면서 '깨달음은 비록 부처와 같지만, 수없는 생에 익힌 습기는 살아 있고 바람은 잠잠하나 오히려 파도는 솟구치며, 이치는 분명하나 생각은 여전히 엄습한다(頓悟雖同佛 多生習氣生 風靜波尙湧 理顯念猶侵)'는 선시를 소개했다.

"처음에는 도인이라기엔 너무 평범한 고백 같아 실망했으나 공부를 이어가며 그 깊이를 이해하게 됐다"고 술회한 윤 감독은 "경허 선사는 한국 근현대 불교에 지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파격적인 무애행으로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선사의 철학이 보다 올바르게 조명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3월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배우와 제작진들도 영화 개봉에 큰 기대감을 표했다. 경허 선사를 연기한 이정훈 배우는 "불자가 아니더라도 종교와 상관없이 볼 수 있는 영화"라며 "걱정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보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영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급을 담당한 김학중 드림팩트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는 "전국 개봉하기는 하지만 일반 상업 영화처럼 스크린에 걸리지는 않는다. 현재 부산 영화의 전당에 개봉은 확정했고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는 독립영화 전용 상영관에서 만날 수 있다"면서 "최종 목표는 30여 개 상영관에서 개봉하는 것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불교 문화유산, 큐레이터에게 듣는다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3월 프로그램 진행**

불교 인쇄부터 조각, 불화 등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을 전문 큐레이터에게 듣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은 "매주 수요일 야간개장 시간인 오후 6시부터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3월에는 상설전시관에서 총 16개의 해설이 진행될 예정이다.

불교 관련 프로그램은 3월 4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불교회화실의 '불화를 읽는 시간'과 오후 7시부터 고려2실에서 진행되는 '고려시대의 불교 인쇄문화'가 시작을 알렸다.

불교조각실에서는 시대, 주제별로 불상을 조명하는 해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3월 11일에는 '조선시대 불교조각'(오후 6시)이, 3월 18일에는 '불상을 보는 다양한 관점(오후 6시)'이, 3월 25일에는 '금동불의 여정'이 각각 관람객과 만난다.

이밖에도 선사고대관 청동기실의 '청동기시대 지배자의 출현'에서는 사회 발전 단계에서 계급의 등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신라실의 '숨은 얼굴 찾기'에서는 경주 식리총 출토 금동신발에 새겨진 무늬를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다. 통일신라실의 '통일신라의 용왕제사'에서는 국토 수호를 기원하기 위한 국가 주도 제사였던 용왕제사의 일면을 다룬다. 신중일 기자


불교조각실에 전시 중인 석조아미타여래입상.

# 문화유산 소장처 관리자 기본 교육 연다

**불교중앙박물관 4월 7~9일, 국제회의장서**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스님)은 "오는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3일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26년도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소장자·관리자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3월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주관하는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소장자·관리자 교육'의 일환인으로 성보와 문화유산에 대한 기초 이해부터 전시, 지정관리 혜택, 안전관리 및 수장고 운영 기초까지 폭넓은 실무 개론을 다룬다. 이를 통해 소장·관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교육은 수덕사 근역성보박물관장 주경 스님의 '성보와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주제 강연으로 1일차 시작을 알린다. 이어 채영 서울공예박물관 전시기획과장이 '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주제로 현장의 이야기를 전한다. 2일차에는 손영문 국가유산청 상근전문위원이 '문화유산 지정 및 관리'를 짚어주며 정제규 국가유산청 상근전문위원이 '기록문화유산 개론'을 통해 기록유산의 실무 기초를 다질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고광열 우송정보대학 교수의 '재해로부터 안전한 문화유산 관리' 강의와 박아연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의 '수장고 운영 관리 기초' 강의가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 간 전자우편과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한다. 교육은 조계종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승려연수교육 인증과정으로, 수강 완료 시 교육부 연수교육 30점을 인증받을 수 있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 제로 선상의 뺄셈과 덧셈의 수행법

㉜ 사정근(四正勤)

당연하지만 막연한 말들이 있다. 예컨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부모의 당부는 옳다. 그러나 아이는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기 어렵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다. 팔정도를 보자. 고요, 청정, 평온, 기쁨의 열반을 성취하려면 먼저 정견을 확립하라고 한다. 세상을 바르게 보라는 뜻이다. 그러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이 없다면, 정견은 각자의 해석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모든 생명 현상이 서로 의지해 존재하고 작동한다는 연기(緣起), 그리고 어떠한 것도 본래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空)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정견이라 한다면 비로소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설명되지 않은 추상적 개념은 언제나 자의적 해석의 위험을 안고 있다.

팔정도의 여섯 번째 덕목인 정정진(正精進)도 마찬가지다. "바르고 부지런히 노력하라"는 말은


四 正 勤

타당하지만,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다. 〈앙굿따라 니까야〉 '노력경'은 이를 사정근(四正勤)으로 설명한다.

"비구들이여, 사정근이 있습니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쁘고 해로운 법이 생기지 않도록 힘쓴다. 둘째, 이미 일어난 나쁘고 해로운 법을 제거하기 위해 힘쓴다. 셋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이 일어나도록 힘쓴다. 넷째,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을 유지하고 증장시키기 위해 힘쓴다."

이처럼 사정근은 삶을 성숙하게 하는 정진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다. 무엇을 막고 무엇을 키워야 하는지가 분명하다. 이 수행 체계는 삼십칠조도품(三十七助道品)에도 속하며, 그 토대에는 연기성과 공성이 놓여 있다.

연기성은 '만약' 행위가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생기고, 행위가 없으면 결과도 생기지 않는다는 법칙이다. 공성은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를 지니지 않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은 이미 결정된 실체가 아니라 비어있는 가능성 위에 놓여 있으며, 우리는 그 위에서 더하고 덜어내는 행위를 통해 삶의 방향을 형성해 간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번뇌와 습관을 소멸시키도록 노력하라. 왜 소멸이 가능한가? 만들어낸 것이니 소멸시킬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평온과 기쁨으로 이끄는 좋은 마음과 행위를 의도적으로 일으켜 더욱 증장시켜야 한다.

사정근의 정진은 연기성과 공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번뇌를 줄이고 선업을 늘리는 실천이다. 이는 추상적 권고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체계적인 수행 방법이다. 〈화순 불암사 주지〉

# 한국 신종교, 어떻게 발전했을까

**불교평론, 2026년 봄호 발간**




한국불교 대표 학술계간지 〈불교평론〉이 2026년 봄호(통권 105호·사진)를 발간했다.

이번 봄호 특집은 '한국 신종교의 지형과 미래'로 한국 근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탄생한 신종교들을 우리 민중의 영적 자생력이 투영된 역사적 산물로 보고, 그 사회적 역할과 미래적 가치를 조명했다.

안신 배재대 교수는 '세계종교사에서 신종교 출현 배경과 의미'를 통해 기성 종교의 세속화와 성스러움의 상실이 어떻게 새로운 종교 공동체의 탄생을 부르는지 짚었으며,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장은 '한국 불교계의 신흥종단 성립과 현황'에서 법화계 종단 등 한국 불교사에서 독자적인 길을 걸어온 신흥 교단들의 성립 과정과 현재의 위상을 살폈다.

조성환 원광대 교수는 '민족종교계통 신흥교단의 출현과 전개'를 통해 증산교와 동학 계열 종교들이 주창한 '해원상생'과 개벽 사상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더불어 이진구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원, 제점숙 동서문화대 교수, 이경원 대진대 교수 등은 기독교계 신생교단의 현황과 사회적 성격, 한국SGI 등 외래 불교의 한국사회 정착과 생활불교적 특징을 학술적으로 진단했다.

권두 논단에는 원로 사상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참여해 자신이 20여 년간 정립해 온 '변혁적 중도주의'가 붓다의 '중도론'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심도 있게 고찰했다. 또한 송현주 순천향대 교수는 '종교 개념의 등장과 근대 한국불교'를 통해 과거의 '교(敎)' 체제가 근대적 '종교' 체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불교가 겪은 진통과 정체성 확립 과정을 치밀하게 추적했다.

이번 호 '불교소설'은 유응오 작가의 '미완의 완'으로, 독립운동의 상징인 '진관사 태극기'를 모티프로 삼고 있다. 일제강점기라는 '미완'의 역사 속에서도 조국 독립이라는 '완성'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수행자들의 치열한 정진과, 해탈을 향한 '미완과 완'의 변증법적 철학을 감동적으로 형상화했다. 신중일 기자

# 금동불·고려불화…한국의 美, 미국에 전한다

**국립중앙박물관 · 현대미술관, '한국의 국보'展**

**3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미국 시카고박물관서 개최**
**국보 보물 등 244점 전시**

삼국시대 금동불부터 고려불화까지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명품 문화유산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전시회가 미국에서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과 국립현대미술관(관장 김성희)은 故이건희 회장 기증품 국외순회전의 두 번째 전시 '한국의 국보: 한국미술 2000년(Korean National Treasures: 2000 Years of Art)'을 미국 시카고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국보 7건과 보물 15건 등 총 127건 244점의 문화유산과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박수근, 김환기 등 한국 근현대미술 13점이 출품된다.

故이건희 회장 기증품 국외순회전은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 D.C.의 스미스소니언재단 산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특별전 '한국의 보물: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의 개최로 첫 여정을 시작했다. 이 전시는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정지로 인해 예정보다 일주일 늦게 개막하는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의 지난 5년 동안 특별전 최다 관람객수인 8만여 명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종료했다. 여세를 몰아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박물관 중 하나로 꼽히는 시카고박물관에서 3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다음 여정을 이어간다.

시카고박물관은 미국 3대 종합박물관으로 지금은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를 위해 건립된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시카고 박람회는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이후, 조선이 처음으로 국제 사회에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 전시를 개최한 곳이기도 하다. 안타깝게도 당시 아시아의 낯선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130여 년이 지나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전시가 같은 자리에서 다시 열리게 된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삼국시대에 조성된 금동보살삼존입상.

전시는 근현대 및 전통 회화, 도자, 불교 의례 등 한국미술 각 분야의 대표 작품을 소개하며 2000년 동안 축적된 한국의 예술과 문화유산을 조망한다. 이들 가운데 정선의 '인왕제색도'와 김홍도의 '추성부도', 삼국시대 금동불, 고려시대 '천수관음보살도', 조선 전기 '석보상절' 등 22건은 한국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보여주는 국보 또는 보물이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조선의 문화를 처음 국제 사회에 알린 시카고에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K-컬처의 원류로서 한국 전통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이번 전시를 계기로 한국의 새로운 국격과 위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7월 5일 폐막 후, 전시는 대서양을 건너 영국 런던의 영국박물관으로 이동해 10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개최된 후 대장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